



미 증시, 전쟁 리스크 재확대 등으로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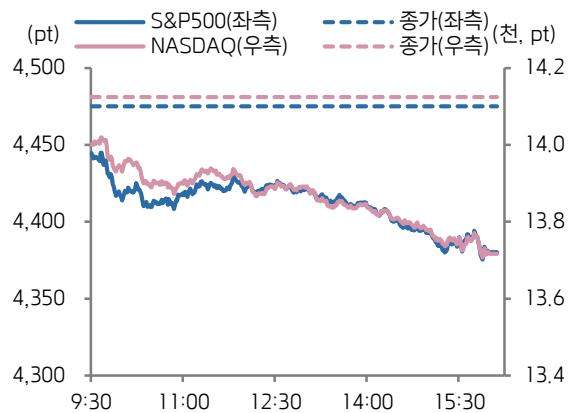
미국 증시 리뷰

17일 (목) 미국 증시는 러시아–우크라이나간 전쟁 공포감이 확대 급락. 돈바스 지역 폭격 이후 지정학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imminent)”고 경고. S&P500 지수는 전일 시스코시스템스(+2.8%)과 오전 월마트(+4.0%) 등 실적 호조 소식에 불구하고 -0.7% 출발 후 낙폭 확대 후 장중 저점인 -2.2%(나스닥은 -3.0%) 부근에서 마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확대되면서 금은 1%대 강세,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8bp 하락, VIX 지수는 15.7% 급등. 한편 국제유가는 전쟁 우려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합의 복원 기대감 확대에 하락(다우 -1.78%, S&P500 -2.12%, 나스닥 -2.88%, 러셀 2000 -2.46%).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 업데이트를 위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한번 러시아군이 철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 바이든은 지속적으로 외교적 해결 방법은 아직 남아있다고 언급했지만, 당장 푸틴 대통령과 통화 계획은 없다고 언급. 이날 백악관, WSJ 는 전일 발생했던 돈바스 구역 폭격은 러시아측의 침공을 위한 “거짓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반군인 LPR(루한시크)은 이날 서로 폭격 의혹을 제기하며 아직 사건에 대한 진실이 불명확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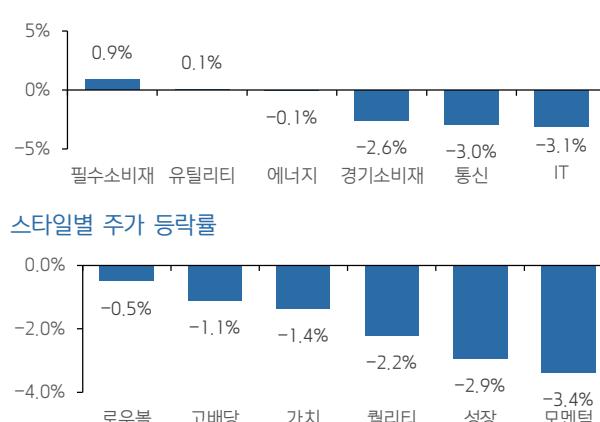
업종별로 필수소비재(+0.9%), 유틸리티(+0.1%)를 제외하고 전업종 하락. 그중 IT(-3.1%), 통신(-3%), 경기소비재(-2.6%)의 낙폭이 가장 컸음. 이날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에 의해 연준의 긴축 우려감도 재부각된 가운데 테슬라(-5.1%), 메타(-4.1%), 알파벳(-3.8%) 등 대형 기술주들이 큰 폭 하락했고, 엔비디아(-7.6%), AMAT(-3.2%) 등 반도체 업체들의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지수는 3.7% 급락.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380.26	-2.12%	USD/KRW	1,197.13	-0.04%
NASDAQ	13,716.72	-2.88%	달러 지수	95.83	+0.14%
다우	34,312.03	-1.78%	EUR/USD	1.14	-0.11%
VIX	28.11	+15.73%	USD/CNH	6.33	+0.03%
러셀 2000	2,028.09	-2.46%	USD/JPY	114.93	-0.51%
필라. 반도체	3,422.60	-3.74%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999.06	-1.93%	국고채 3년	2.292	-2.8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708	+0.6bp
Eurostoxx50	4,113.19	-0.58%	미국 국채 2년	1.470	-5bp
MSCI 전세계 지수	720.10	+0.32%	미국 국채 10년	1.970	-6.8bp
MSCI DM 지수	3,060.29	+0.2%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44.19	+1.23%	WTI	91.6	-2.2%
MSCI 한국 ETF	73.10	-0.79%	금	1900.5	+1.5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9%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16%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62%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99.5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장중 전해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뉴스플로우
2. 미국 증시 급락 충격으로 인한 아시아 전반적인 증시 내 안전자산선호심리 확대 가능성
3. 국내 코로나 확진자 급증 지속에도 리오프닝, 또는 일상 전환 기대감 지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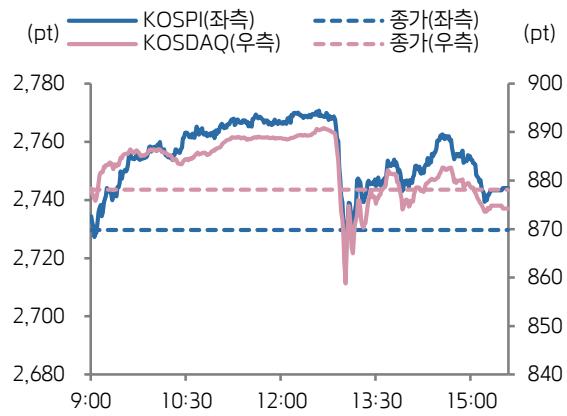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현재 시장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극도로 민감한 상태. 전일 국내 증시가 장중 일시적으로 급락한 것도 우크라이나의 친러 반군 공격 소식을 둘러싼 전쟁 루머에서 기인. 공격지역으로 알려진 돈바스는 수년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었으나,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침공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위장작전을 단행한 것이라는 의견까지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 또 미국 증시 낙폭 확대의 단초를 제공했던 바이든의 발언처럼,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러시아 측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구도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미국도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판별하고 있는 것일 뿐 여전히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최근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회담을 제안한 상황인 만큼, 실제 무력 전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

1월 FOMC 의사록이라는 한 고비는 넘겼으나,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도 시장의 만성적인 부담 요인으로 남아있음. 17 일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재차 7 월 1 일까지 100bp 금리인상을 주장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통제불능 사태로 치닫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더해 비정기적인 회의, 긴급 FOMC 를 개최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 다만 세인트루이스 총재는 매파 성향이 연준 내에서 가장 짙다고 볼 수 있으며, 여타 연준 위원들은 50bp 금리인상(3, 5, 6 월 FOMC 중 어느 회의에서라도)을 선호하지 않은 입장임을 감안 시 7 월 1 일까지 100bp 금리인상보다는 75bp 금리인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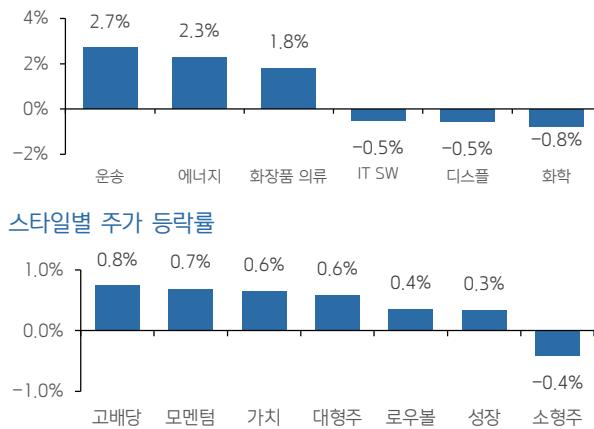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 급락 충격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뉴스플로우에 시장이 수시로 급등하면서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따라서, 관련 뉴스플로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매매하는 것 보다는 현시점에서는 사태 추이를 지켜 보면서 관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외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짰습니다.